
2023년 제1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의개요

- 일 시 : 2023. 12. 28.(목) 14:00 ~ 17:0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1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심의
- 심의안건 : 5개소 22작품(조각 12, 회화 10 / 신규 22, 재심의 0)

□ 심의결과

- 22작품 중 가결 16작품(원안 13, 조건부 2, 권고 1), 부결 6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운남동 1709-1 (영종하늘도시 A25BL)	조각	Life Story		○		
2	2	송도동 397-2 (A16BL)	조각	UTOPIA		○		
	3		조각	빛으로 피어나다			○	
3	4	서구 검단신도시 AB17BL	조각	Horizontal Blue		○		조건부
	5		조각	쌓기			○	
4	6	남동구 간석동 900-138	조각	Sun-path-Moon		○		조건부
	7		조각	맺고 있는 연결 상태 (being connected)			○	
5	8	송도동 30-6	조각	사계(四季)-선물(膳物)			○	
	9		조각	홀로 서기(stand alone 202311)		○		권고
	10		조각	大地로부터-發芽			○	
	11		조각	만물(萬物) 물감-03		○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5	12		조각	바다의 아이들			○	
	13		회화	비상 I / Soar		○		
	14		회화	도시산책자-별(월미도)		○		
	15		회화	섬 길		○		
	16		회화	희념-나래를 펴다		○		
	17		회화	뒷동산		○		
	18		회화	희념-여행을 가다		○		
	19		회화	공간 율-1		○		
	20		회화	Healing Landscape-愛-1		○		
	21		회화	공간 율-2		○		
	22		회화	Healing Landscape-愛-2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세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1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실 위원님을 좌석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 인원은 총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5개소, 22작품이며 조각 12작품, 회화 10작품입니다. 그리고 22점 모두 신규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전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 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에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류를 통해 재심의 받을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서약서의 내용처럼 오늘 심의된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청렴 서약서 제출)에 규정된 청렴서약서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선언 순입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

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11차 회의에서는 총 22 작품을 심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Life Story>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 친화적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형물 같은 경우는 뭔가를 압도하거나 사람과의 소통에서 좀 괴리감 있는데 이 작품은 뭔가 친화적이고 그런 점에서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계속 주시죠, 위원님들.

○○○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작가고 그런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공간 얘기를 하시지만 공간이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작품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어떤 환경 조각의 어떤 작업이라고 할까, 특성을 잘 살리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요. 그 작품의 어떤 특성 같은 경우는 채색 조각을 주로 작가가 하는 그런, 30년 이상 저런 작업을 이렇게 했으면서도 형태를 이번에는 좀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주시죠.

○○○ 저도 이 작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간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좀 이제 설치했다는 게 좀 재미난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품을 돋보이게 했다는 거에 장점을 줄 것 같습니다.

○○○ 그 인물 포함해서 그 벤치 같은 것도 작품의 일부죠?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예.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 주시죠.

○○○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여쭙보고 싶은 건데요.

위원장 네, 네.

○○○ 지금 보면 이 작가님이 이런 스타일, 저는 작품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서구라든가 이 신도시 부분에 모든 아파트에 다 이분 작품들이 이렇게 짝 깔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약간 너무 그... 아파트에 조형물을 세운다는 게 물론 그,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거지만 아파트 자체의 특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너무나 똑같은 게 서쪽으로 다 깔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품에 대해서 저는 더 말할 나위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도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짝 깔려지면 사실 좀 너무 많아서. 서구 가면 아파트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이런 조형물 하시는 분들의 그 뭐랄까, 저변이 너무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론 잘하시니까 찾는 분도 많겠지만 너무 한 쪽으로 몰리는 거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그냥 점수와 별개로 그냥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저도 공공 시설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이제 공공시설물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너무 같은 게 반복돼서, 벤치마킹을 지자체에서 다 뿌려지는 것도 같은 건데 이런 조형에서도 이렇게 보인다는 게 좀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 대중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예, 해주시죠.

○○○ 아,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항상 보이는 작가들이, 작가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심의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제가 ‘이 말씀을 꼭 이번에 드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에서는 이제 제의를 한 게 여기 채점표

에 다양성에 대한 것을 채점 점수를 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 갖고 그걸 갖다가 정책회의 때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공공미술 이 지금 미술 작품이 이렇게 나온 게 다 작가들을, 생활을 위해서 나온 건데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한 5%? 3%? 상위 3%가 조형물의 한 90%는 다 하고, 나머지를 한 10%를 갖고 그냥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분들의 능력은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실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할 때 사실 이분들을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많이 하면 할수록 완결도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흠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만 점점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딜 가나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각적 피로감도 많이 느껴지고. 물론 일반인들이 좋아한다는 거는 다 이해를 하지만 좀 더 나은 그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을 하면 과연 이렇게 많은 작품이 세워지는 게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 작품을 갖다가 측정하는 거와 별개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를 하고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이런 체제를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특히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되고 또 이제 힘든 작가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게, 이 법이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그런 그 체계적으로 그런 게 만들어져야지 되지, 사실 와서 이 작품 갖고, 꼬집고 이걸 갖다가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여기서 뭐. 이게 너무 많이 세워졌으니까 싫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발의를 한번 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정책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을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

네, 네. 사실 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과 관련돼서 그 애정이나 어떤 좀 중요한 관점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 분야에 모여 사는 사람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제도와 규정의 어떤 허점이거든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또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 허점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그리고 우리 미술인들. 심의위원 포함해서 미술인들이나 저 작가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했다는 거 알지,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분야에 있으니까 많이 아는 거고. 그리고 이 작가들이 스스로 내 작품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선정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비되지 않는 이상은 그 인기 작가들 또는 대중적인 작가들이 작품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의식은 있겠지만 예, 말씀하세요.

○○○

저는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 그거는 이미 떠나서 그 저는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하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제한적인... 사실 이제 심의를 할 때도 사실 새로운 작가들을 계속 인천에서 발굴을 해서 키워줘야 되는 것도 맞고. 참,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여건에서

○○○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들이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발굴이 다 된 발굴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이제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어차피 이제 이 작품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어

졌거나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다양한 작가들이 좀 할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작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많은 걸, 뭐 부익부 이런 건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만 좀 미술인들이라도 좀 생각을 해서 어느 부분에 조금 제재를 가하고 어떤 때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정책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술인들이 얘기를, 말을 내지 않으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아셨겠어요. 왜냐하면 인천에 있는 것만 아시지, 전국에 뭐 어떻게 세워지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어느 심의회의에 들어가도 항상 들어오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심의를 하면서 피곤함도 느끼고 그러는데 작품상으로 그 이런 평가 기준에 못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네, 맞습니다. 예.

○○○

네, 저희 작품에 대해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

뭐 작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요. 그냥 일단 설치 방법, 유지 보존 계획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 지금 벤치에 앉아서 그 관객 참여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까도 입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옆에 앉아서 만지거나 같은 사진을 찍는 포토존 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조각하시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레탄 코팅 해가지고 채색을 브론즈 위에다 하면 만지면 깨집니다. 나중에 한 1~2년 정도 있다가 손상이 돼요. 근데 유지보수 계획에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하겠다, 그렇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 있는 독립적으로 해서 관람을 하거나 보는 작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데 뭐 그것도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사실 크랙이 생기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람 손을 탈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어떻게 유지보수 계획을 더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살펴보니깐 그게 없더라고요. 빠져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나중에라도 그런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좀 작가 분께서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런 내용이라면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조금 더 확고하게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약속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의견을 다들 말씀하셨죠? 더 이상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작품별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2. 연수구 송도동 397-2(A16BL)

2) <UTOPIA>

위원장 자, 다음으로 2번. <UTOPIA>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작품들도 대부분 다 우레탄 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레탄 도장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5년 또는 7년 정도 뒤, 한 제 생각에는 7년 정도면 다 이 크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론 우레탄이기 때문에 깨지는 확률은 적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사실 오래가는, 한 20년 가는 불소 페인트가 있거든요. 왜 싼... 뭐 우레탄이 쓰기 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소 페인트를 쓰지 않고 얼렁뚱땅 해 나가는지는 사실 계속 의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불소 페인트도 그냥 롤러질, 붓질, 뿌리기 다 되거든요. 가격이 좀 비싸다, 그것만 있지.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 조색하고 발색 문제 아닐까요?

○○○ 일단 공공 시설물 자체에서 우레탄 도장이 제일 많이 쓰이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근데

○○○ 아, 예. 그게 편하고, 쉽게 구입도 가능하고요.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판넬 같은 경우에는 불소 페인트로 도장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판넬이 오래 가거든요, 외부에 장착하는 판넬 같은 경우. 불소 페인트도 도장이 되고, 도장이 된 사례는 서울에 있습니다.

○○○ 근데 대부분 저런 작품 할 때 색칠되어 있는 재료로 쓰는 게 아니라 작품을 다 조각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채색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하는 위원들 있음)

○○○ 그러니까 채색돼 있는 재료로 쓰면 이제 훼손되니까 다 만든 다음에 색칠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그리고 요즘에 이런 금속 그 하시는 분들은 코팅 클리어를 굉장히 좋은 걸 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코팅 클리

어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 코팅 클리어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유지보수가 그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워낙 채색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코팅 클리어에 대한 거를 좀 이제 잘해서 어느 정도 저렇게 조형물을 시도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조각조각 붙여진 거 보고, 조각조각에 채색된 거를 보면 뭐, 어디 벗겨지거나 좀 그래도 별로 티도 안 날 것 같은데요. 워낙 작품 자체가 곱고 매끈한 게 아니라서. 아마 그거는 뭐 작가의 특성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의견 좀 주시죠, 작품에 대해서. 그 안에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조각조각 연결해서 만든 작품이라서 그 틈새 사이사이에 어떤 그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거를 했다고 강조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사이사이에. 틈새에. 그리고 사실 위치가 들어가서 애들이 막 만지고 노는 장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전하게 잘 서 있는 거 하고 그 틈새에 매끄럽게 안전 처리를 잘 한 거, 그것이 안전에 가장 큰 요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다른 의견들 없으신가요?

○○○

이것도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라서.

○○○

근데 여기 우리 인천 쪽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작품이 많이 설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야외보다 실내에.

○○○

아, 실내예요?

○○○

네, 주로 실내로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요즘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야외로 나오면서 또 그 90%에 가까운 그런 작가 중에 하나예요.

○○○ 저는 아트페어 같은 데서 한번 살짝 본 것 같아요, 아트페어.
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채점하시죠, 예.

(채점 중)

2. 연수구 송도동 397-2(A16BL)

3) <빛으로 피어나다>

위원장 다음으로 3번. 같은 지역인데요, 2번하고. <빛으로 피어나다>에 대해
사회자에게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3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 너무 크게 변화가 없고요. 이게 과연 조형적으로 맞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스테인리스 굴을 갖다가 막 해서
한 것도 좀 미적인 그런 것보다는 약간 잘못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이게 차라리 크기의 변화나, 어떤 기울기의 변화가 좀 있으면 차라리
움직임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냥 마치 그냥 가로등같이 그냥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경직되고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이 들어오니까
더 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 하시죠, 위원님들.

○○○ 저는 일단 같은 단에 유니트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뭐 그 크고, 작고
이런 것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유니트가 어떻게 배치를 해서 그 벽
을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크기가 같다는 거는

뭐 그렇게 치더라도 야간으로 왔을 때 이 색감, 그 야간 경관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LED 요새는 너무 많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뭐랄까, 백색 등으로 이렇게 굳이, 흰색 낮에도 하얀데 밤에도 이렇게 백색 등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 야간 경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크기의 어떤 직선적인 유니트가 너무 단조롭다 하면 빛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건데,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해서 그런 거는 조건부로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실 야간에도 그렇지만 주간에도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견 주시죠.

○○○ 저도 모든 면에서 좀 단조롭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그렇고, 변화도 없고. 또 이제 저기 구슬로 됐다고 그러는데 좀 키 낮은 부분에서는 좀 훼손 염려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 제일 단조로운 게 크기가 지금 하나로 통일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둥이 너무 똑같은 150 파이로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조형적인 형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아마 작가 본인은 변화를 줬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네.

○○○ 저는 이 작가, 도면도 도면인데 작가의 어떤 예전에 작품 성향을 좀

봤어요. 그래도, 그래도 뭐 조형물을 위한 작품보다는 그래도 작가적인 성향이 그래도 많이 기술적인 것도, 테크닉도 많이 반영돼 있는 작업 같아서 사실은 뭐 공공 조형물로서 딱 안정성 무슨 조화,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들의 작품인 것 같아서 그거는 또 그거를 좀 저는 높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위 그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거 3D 했을 때 느낌하고, 실제 느낌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도면에서 보시면 이런 은색 나는 빛은 절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실제 물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 이걸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에 대한 심의이지, 사실 이 작가의 역량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에 대한 의견이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다 나온 건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그럼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3. 서구 점단신도시 AB17BL

4) <Horizontal Blue>

위원장 다음으로 4번, <Horizontal Blue>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자 4번과 5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본 작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굉장히 수변 공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영리하게 잘 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저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이긴 한데요. 야간에서 그 수중등만 가지고 빛이 저렇게 위까지 반사돼서 나올 만큼의 양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라이트에 빛의 양, 퍼짐 같은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수중등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서치는 아니지만 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맞아야지 이런 조감도에서 나오는 정도의 빛 퍼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라이트 야간에서의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펙을 좀 적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 그 물속에 매입되지 않고, 물 밖으로 솟아나오게 조명을 하면 지금보다 더 효과가, 저런 효과가 나오겠죠, 더. 지금 저 물 자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면 물 밖으로 주는 게,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그것도 그렇고 지금 라이팅이 보면 수중등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 빛의 세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에 같은 저기로 있으면 그냥 퍼져 보이기만 하지 위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한 스펙을 좀 다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는 그것도 조건, 뭐 권고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

면.

○○○ 제가 좀 한 말씀드리자면 9번 작품 제작 시공 방법에서 그 일단은 시공 방법, 계획도가 있는데 위에 올라가는 작품들이 물론 용접해서 이렇게 붙여지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좀 세부 시공 방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 연결 부위 말씀하시는 거죠, 상단에?

○○○ 네. 맨 위에 있는 상단이나, 어쨌든 상단의 크기가 작든 간에 접합 부위와 밑에서부터 하부에서부터 올라가는 어떤 기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알곤 용접으로 붙인다고 돼 있어요.

위원장 예.

○○○ 구조도. 구조도, 그러니까 다른 도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상세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들 없으시면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3. 서구 점단신도시 AB17BL

5) <쌓기>

위원장 다음으로 5번 작품 <쌓기>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5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저기 3D 도면이 너무 크게 돼 있어서요. 사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게 4m 50인데 실제로 저 앞에 있는, 제일 하단부에 있는 거 정도가 한 뭐 60에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일 밑에 있는 게 50, 60 정도. 근데 뒤에 배경에 사람을 넣어놓는 것을 너무 작게 해서 작품이 굉장히 커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좀 경고성 멘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거 낼 때도 실제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시각 3D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 네, 맞습니다.

○○○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사람하고 같이 있는 뷰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죠.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건 없나요?

서 기 이게 다입니다.

위원장 네.

서 기 세 장 들어있습니다.

○○○ 한 6m 정도 돼 보이죠? 6m. 네, 네.

○○○ 예, 이거 3T라고 돼 있었거든요. 3T면 아주 얇아서. 지금 7번에 그 도면인가요? 7번인가, 8번. 그 도면... 아니, 8번이요. 예. 거기, 여기에서 이 두께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사실은 그 종잇장 같은 거거든요, 3T면. 밴더판 3T면 그냥 우리 커터칼로 잘라집니다. 되게 얇은 걸로 이렇게 두껍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좀.

○○○ 근데 이게 박스형으로 3T, 3T 해서 이렇게 두께가 있지 않나요?

○○○ 예.

○○○ 박스형으로도, 박스형으로도.

○○○ 그러니까 철판, 그 스테인리스 판 자체가 3T라는 거지, 저 작품의 표면적에 직경이 3T라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두께는 뭐, 더 두껍겠죠. 근데 사용한 재료, 원재료가 3T라는 거죠.

○○○ 제가 봤을 때 그 심의도서에 그런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평면도에서 보시면 지금 흰색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세밀한 그런 정량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혼동이 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판 하나하나 3T를 여러 개를 붙여서 한 건지 아니면 그 박스 형태를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이 장면만 보고는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네, 사실 그래픽이 아주 디테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으면 판단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고. 오늘은 좀 그래픽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네요. 사실 그래픽만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픽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 왜냐하면 그 공공시설에서 중요한 게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주로 뛰어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무릎 위 정도 높이라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올라타고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말 그대로 3T 여러 장을 붙였다 하더라도 날카로운 건 사실이고요. 그럼 뭐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좀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네.

○○○ 작품 제작 방법에서는 알곤 용접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박스형으로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역 치수가 전혀 안 나와 있어

요. 어떻게 가공을 할 건지 그다음에 여기서 색깔이 지금 흰색이 안쪽에 하고 가운데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3개의 다리를 붙여서 할 건지 아니면 2개를 해서 가운데판을 하나 뒤편에 할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제작 방법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내부 설계 도면은 조금 추가로 첨부해야 하지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위원장 네, 네. 지금 뭐 그래픽 문제, 디테일 문제, 안전 문제 다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거 참고하셔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위원장 네, 네.

○○○ 예, 기학적인 형태의 이제 추상적인 이미지로 이게 그 단지 가운데 이렇게 설치되는데 색감이나 이 형태가 과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마 혼자만의 이제 독특한 모습으로 이제 서게 될 텐데 조금 그거랑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4. 남동구 간석동 900-138

6) <Sun-path-Moon>

위원장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6번 <Sun-path-Moon>에 대해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6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위원님들 본 작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 가격에 비해서, 그 가격을 감안하다 보니까 단순 경쾌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제공하셔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떤 작가 작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단순한 어떤 조형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현명한 작품으로서 적절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죠.
-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쨌든 저기 뭐 조형적으로 의도되는 바는 있지만 기울기도 어쨌든 조금 불안해 보여요. 구조적으로 이게 설명이 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저기 폭이 45면 아까 저기 도면에 그 전경에 보면 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정말 거기를 넘나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라도 밟고 지나가는 횡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불안함이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당연히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고려한 게 아닌가요? 여기를 통과해서.
-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에 대한 구조도 나름... 그렇게 보강이 사실은 좀 미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기울기가 있으면 밑에 보강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보강 밑에 저 정도로 과연 지탱이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작가의 의도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바닥으로 약간 붙여서 사람들 그냥 잔디밭 좀 약간 좀 지나가는 그런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저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좀 이런 형태는 단순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다라는 얘기하고 등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그런 거를 지적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게 그렇다고 반듯하게 세워 놓으면 문혀가지고 저게 조형이

○○○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위에, 땅 위에 놓여진 거하고 약간 땅을 뚫고 들어가서 박혀 있는 거하고도 또 느낌이 많이 다르죠. 지금 저 상태도 작가가 백분 의도했겠죠. 일부러 밝고 지나가게 하려고 저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작가… 예.

○○○ 안전성이 이게 바닥에 아예 붙어서 불링이 없어서 이렇게 통과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작가가 이걸 약간 들어서 한쪽으로 의도를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 받침대를 조금 더 해서 아예 그런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두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땅으로 묻혀서 그거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인데 없애면 이 각도에 대한 느낌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이 단을 조금 더 높여서 그걸 하는 게 안전성에서는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야간 쪽에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빗공해가 굉장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빛 밝기가 도면상에도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야간에 안정성 있는 게 3,000k 정도의 그 빛 조절이 좀 눈이 좀 편안한, 그런 것도 지금 저렇게 발광되어서 있는 거 보면 거의 그 이상의 한 6, 7000정도까지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저거는 사실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빛의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낮춰서 은은하게 편안한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라 주거지에서의 야간 조명상으로는 저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좀 많이 아쉽고. 그 뭐랄까, 이 넓이하고 그다음에 두께 턱하고의 기울기를 봤을 때 되게 조금 많이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불륨이나 이런 비율 같은 거는 좀 약간 디테일한 맛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많이 아쉬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꺼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10시 이후에. 그래서 그런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 사실 야간에 하시겠지만 조명이 없어도요. 웬만큼 보입니다. 아주 칠향은 아니고 또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경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할 필요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웬만큼 다 보이니까.

○○○ 이 작가 포트폴리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걸 공공 미술작품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할 거냐, 그거는 좀 숙고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실 저기서 조명까지 없으면 더, 더 단순해지죠.

○○○ 조명을 추가로 그렇게 해서.

○○○ 예, 조명은 빛 낮추는 거야, 뭐 통과가 되면 그거는 충분히 권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밤늦게는 언제 시간이 되면 꺼지고 그거를

○○○ 네, 타이머로요? 예.

○○○ 네.

○○○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 네.

위원장 네, 그거는 결과를 보고 의견을 줘도 되고요.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4. 남동구 간석동 900-138

7) <맺고 있는 연결 상태(being connected)>

위원장 자, 다음 작품. <맺고 있는 연결 상태(being connected)>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7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아파트 같은 공공시설물인가요, 이게 지금?

○○○ 네, 공동주택이죠.

○○○ 근데 이 작품이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었을 때 과연 이 LED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런 계획들이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심의가 좀 불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작가 작품들이 여러 군데서 또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너무 패턴이 똑같아서 사실은 좀 단조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에 광확산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걸 성형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성형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그래서 오브제 같은 거 그냥 붙이는 것 같은데. 탄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사실 심의 대상에 올라가야 가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네, 또 의견 주시죠. 예.

○○○ 사실 요즘 들어서 이런 조형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뭐라

그렇까, 디자인적인 그런 조형이 너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평이 요즘 아주 유행처럼 하고 있어서 신선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세웠을 때 이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악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 네, 네. 제일 높은 게 몇 미터죠? 2m 50이고 실제로 야외에 있을 때는 되게 낮아 보이겠네요.

○○○ 이게 금액도 워낙 작아서.

위원장 네.

○○○ 왜냐하면 그런 것 같은 것 다 기성 제품을 쓸 수 있고 사실 이 정도 크기면 상가나 이런 쪽에서의 작은 장식품 정도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볼륨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사이즈라서. 근데 지금 보면 가격대가 7,500 정도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 6번 작품하고 같은 지역 같은데 한 작품 가격을 두 개로 자르니까.

○○○ 이거 사이즈를, 볼륨을 더 키워라 하면 가격이 안 맞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뭐라고 그렇까. 이분 작품 패턴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성에서, 독창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본다고 그러면 타 작가에 분류되는 건 있겠지만 작품하고 작품 사이에 독창성은 지금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있는 것에 대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차라리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로 그냥 좀 볼륨만 이렇게 올라가면 오히려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작가 성향이 있어서 그걸 붙이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 네. 작가는 또 뭐 하나 더 하면 또 빈약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 네.

○○○ 왜냐하면 형상 자체가 뭐 아기자기하고, 재밌고, 신선하고, 새롭고 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만 서 있어도 흥미로울 텐데 여러 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지만 뭔가 좀 흥미로워지는 그런 스타일의 작품이라서.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5. 연수구 송도동 30-6

8) <사계(四季)-선물(膳物)>

위원장 네, 다음 안건 <사계(四季)-선물(膳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8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사실 이 심의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분한테 죄송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뭐 옛날로 돌아갔다고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최고의 난제는 그 재료들과의 부조화. 일단은 석재와 브론즈가 조화롭지 못하게 어쨌든 조형적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칠보라는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표현이 문힐 정도의 어떤 그런 조형의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 이게 지금 아까 구조를 보니까 판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 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가격이 3억 9,000은 말도 안 되

는 가격이고요.

○○○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봤습니다. 단순한 사각 기둥과 브론즈를 사계를 표현한 것이 비석, 왕관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좀 사계를 표현하는 느낌도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 작가가 개인적으로 이 어떤 작업을 하나면 금속을 이용해서 표시라든가, 식물 같은 거. 그래서 주로 조형물보다는 개인 작업에 아주 충실한 그런 작가입니다.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작품들을, 그런 작품과 이제 조형이라고 할까, 그 공공작품을 결합만 하고 있는데 약간은 이제 오버한 면이 이게 이 자신의 어떤 작업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한 자기가 그동안 해왔거든요. 열심히 작업하는 하는 작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일단은 높이가 4m 30, 4m가 넘는데 주 표현 브론즈 높이가 3m가 넘어요. 그러면 보통 바라볼 때 저게 많이 안 보일 수 있어서, 사실은 이분이 작가성을 반영했다는 작품인데 너무 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찰 할 수 있는 게 좀 너무 높은 위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네.

○○○ 그 작업 작품을 계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작가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서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그 1번 작품 포트폴리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에는 의문이 좀 제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작품을 지금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분은 각자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5. 연수구 송도동 30-6

9) <홀로서기(stand alone 202311)>

위원장 자, 다음으로 <홀로서기(stand alone 202311)>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9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그 24페이지, 작품 배치도를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면 배치도상에 공기 안전벨트, 전기 위치하고, 소방차 정차구역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 상으로는 그 작품이 건물 외벽에 거의 붙어서 설치되는 걸로 지금 이미지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화 활동을 하는 위치랑 간섭되지 않나, 저는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 네, 네, 설치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검토가 됐다는 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간섭이 있다면 위치가 좀 조정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그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봤을 때 조형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네.

○○○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좀 약간 사족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은 게 의자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 아, 바닥에요?

○○○ 예, 그래서 괜히 전체적인 사이즈 폭을 6m로 늘리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소방 위치라든가 이런 거가 간섭이 된다고 한다면 볼라드 같은 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빼도 되지 않을까, 작품 생각에

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로 6m 말씀하신 거고 높이, 작품 높이는 한 10m 되나요?

(“네.” 하는 위원들 있음)

○○○ 아, 네, 네. 생각보다는 큰데 이거는 그래픽이 아주 과장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작아 보여 가지고. 10m도 큰데.

○○○ 기둥만 올라가는 거라 사실은 높이가 높아질 뿐이지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 또 의견 있으면 주시죠.

○○○ 그게 어떤 사족에 불과하다, 없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아하겠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사람 표현을 너무 흐리게 조그맣게 해 놓아 가지고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 사람이 옆에 서 있었다면 규모가 좀 더 가늠이 될 텐데.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10m는.

○○○ 저도 옆에 있는 그 돌, 이게 없는 게 더 조형적으로는 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 바닥에 있는 거예요?

○○○ 네, 네.

○○○ 아,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그거는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나올 것 같고요.

○○○ 실제로 저런 그 볼라드가 이제 건축물 준공할 때 장애인협회에서 되게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시각장애인.

위원장 네, 맞습니다. 자, 의견이 다 나오셨으면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5. 연수구 송도동 30-6

10) <大地로부터 發揚>

위원장 자, 다음 작품 <大地로부터 發芽>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0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이 그 구조도에서 보니까요. 이 스테인리스 스틸 2~3T, 2~3T 정도 두께 하나, 한 사이즈가 그런데 이게 높이가 2.65m예요. 그래서 2m 65cm인데 그러면 이 3D가 틀렸다는 얘기고요. 한 장의 두께가 최소 저건 15T 정도 나와야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2~3T로 메이저 코팅을 해서 하면 반드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도 또 휠 수밖에 없고요, 이 2.5m까지 올라가면서.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조형성이라든가 형태 자체도 너무 진부한 그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 주시죠, 위원님들.

○○○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밑에 받침에 있는 석재가 지름이 한 3M 정도 되는데 충분히 바닥과의 격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표현된 대로 광이 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듬질이나 그런 쪽

으로 해야 이 미끄러움 방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안전상의.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혹시라도 통과되면 그걸 좀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바닥 속의 표면 말씀하시는 거죠?

○○○ 네. 저렇게 광이 날 경우 비올 때 특히 화강암은 미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게 넓이가 좀 넓은 편이라 충분히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조금 나중에

○○○ 저기 설치 위치가 뭐 이렇게 중앙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좀 이렇게 그런 구역인지 아니면 그냥 독자적인 보호구역인지 잘 모르겠네요.

○○○ 통행이 많은 그 선근의 중앙인 것 같습니다, 상가 그 한가운데

○○○ 통행 하는 데 같아요?

○○○ 예. 한가운데서 지금

○○○ 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 그리고 지금 기초도도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기초도가 아니라 전체 구조도도 네, 구조도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안전하게 서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 지금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두께가 2~3T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스케일로 봤을 때는 한 6T 이상이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6T 이상이 아니고 2~3T로 쓴다고 하면 어떤 도면을 좀 이렇게 뭐 박스로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옆면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한다든지 그런 도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면이 없어서 또 아까 전, 그전에 도면 미흡했던 것처럼 이것도 도면이 되게 미흡한 것 같아요. 세세한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이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면이 없어서 좀 이걸 보고 이게 어떻게 구성이 작품이 어떻게 제작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네, 보통 말씀하셨던 문제들은 대부분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 같습니다. 분명히 작가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박스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픽 하시는 분이 꼼꼼하지 않은 거죠.
-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 서 기 49요?
- 네. 49페이지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박스로 해서 연결한 게 아니라 아까 이거 지금 판으로 그냥 붙인 거 같은, 이렇게 도면이 보여지거든요.
- 네, 그런 것 때문에, 판인 것 같습니다.
-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T는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조금 뭐랄까, 작가 자체도 판을 다룬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휘거나 이게 분명히 되거든요. 특히 가운데 용접을 했거나 했으면. 불 닿고, 판 닿으면 분명히 휘게 되는 게 있어서 이런 웨이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면은 조금 다시 첨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 그...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조각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공공미술작품을 하는 사람인데 웬만하면 다 좀 가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입장인데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나오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너무 좀 성의가 없으면, 성의가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지는데 이건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과대, 과장된 이런 작품들을 붙였을 때, 가결을 시켰을 때 그다음에 진짜 열심히 하는 작가들이 더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픽 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 그렇죠, 예.

○○○ 왜냐하면 그래픽을 해도 작가가 감수를 하게 돼 있어요.

○○○ 그것이 이제 불성실했던 거죠, 그 과정이.

○○○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냥 말기거나 아니면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 네. 분명히 작가가 그냥 말렸을 것 같아요, 느낌에.

○○○ 예. 그거 지금 47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 기 47쪽이요.

○○○ 예, 예. 거기 위에 보면 스틸과 브론즈의 두께는 2T 이상으로 하고, 뒤편쪽 철골 구조로 이렇게 본성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2T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치면 찰랑찰랑할 그런 두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께로 이 이미지가 안 나오니까 그래픽 하는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 수밖에, 사실 이 그래픽 이미지로만 봐갖고는 이 정도면 한 10T 아니면 20T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일종의 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2T가 아니고 0자 하나 빼서 20T였던 거나. 네, 그거는 돈 문제도 끼여 있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지정해야 될 것 같아요.

○○○ 아니근데 금액이 3억 얼마기 때문에 이거 20T로 하든, 30T로 하든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 아, 예.

○○○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격대비 해서.

○○○ 이거는 충분히 만들고도 남아요.

○○○ 저는 이 페이지에서 보면 가운데 스테인리스 스틸 2에서 3T 하고 플러스 마무리 작업이라고 돼 있어서 박스 마감이라고 좀 이해를 했거든

요. 이게 아마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박스인지, 두께를 말하는 건지.

○○○ 마구리라고 했을 때는 그냥 외관 필름 착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박스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단어로 쓰기에는 이 도서에서는 너무 그렇죠, 무성의를 거죠. 그걸 도면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이것만 보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픽 하는 사람 문제는 아니고 작가가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네,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5. 연수구 송도동 30-6

11) <만물(萬物) 물감-03>

위원장 네, 다음 작품 <만물(萬物) 물감-03>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1번 작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구상 형태는 그렇더라고 인물을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됐나, 어떻게 됐나. 인물 표현이 미숙하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인물이라든가 이런 사실상이나 역동성이 이렇게 아니면 더 단순화한 그런 어떤 조형적인 제스처 같은 게 필요할 텐데.

○○○ 저는 그 작가 경력, 작품, 해놓은 것에서 봤을 때 거의 똑같은데 천장

에만 없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붓질이 중간에 끊어진 그 작품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별 고민 안 하시고 그것만 이어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여기 그 보면 같은 작은 작품인데 붓질에 저기만 끊어진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 어디?

○○○ 이렇게 보면.

○○○ 거의 똑같잖아요.

○○○ 아, 네.

○○○ 그리고 그나마 저기는 저 도로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걸릴 저기가 없는데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밟고 지나간다는가, 걸릴 수 있다는가, 손을 탄다는가 이렇게 될 요지가 크다고 봅니다.

○○○ 아, 그리고 그 작품에서 이렇게 통행이 확보가 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예,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55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사이 사이에 어떤 손닿는 부분에 이렇게 틈이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끼임이나 이런 좀 사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명이 설치가 되는데, 천장에. 그 조명을 어떻게 그 뭐죠? 보수를 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명이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 아까 처음에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그림에서 보면 그게 그래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과연 설치가 되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픽이고 저희 심의서류 넘어온 것도 그래픽인데 과연 그랬을 때, 만들어 냈을 때 거의 저런 느낌이 안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좀 그래픽 상은 너무 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오늘 좀 그렇네요. 제가 계속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닌데 계속 그래픽만 얘기를 하게 되네요.

○○○ 지금 보니까 재작년도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 근데 안에 저렇게 다채로운 색감이 영롱하게 나기는 저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 이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제 작가님들이 직접 그래픽을 하시지 않다 보니까 하시고 나면 그래픽에서 감수를 하셔가지고 좀 안 되는 것들은 좀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보기 좋으니까 그냥 “실어.” 이렇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하네요.

○○○ 작가들도 그래픽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 예, 직접 하시면 확실히 다르긴 한데.

○○○ 그리고 문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렇게 폴리싱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뭐 손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 코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저기서 빛 반사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왼쪽 상단의 작품인데 저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나요? 지금 보이는... 아니, 지금 보이는 방금. 이게... 아니, 조금 전에 볼 때. 아니, 이거 말고. 잊어버리셨나보다. 여기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아까는 왜, 이거는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 이게 좀 많이 빠졌네요. 근데 보통 이제 캐드로 해서 그냥 그대로 찍으면 그 위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각도가 훨씬 더 밖으로 나가게 다 잘못 표현된 것 같아요. 아까 그 조감도에 비해서는.

위원장 네, 채점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거 채점 마치시고 5분간 휴식하고 하
 겠습니다.

5. 연수구 송도동 30-6

12) <바다의 아이들>

위원장 자, 다 들어오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 <바다의 아이들>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2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기 밑에 하단이 등대로 표현되는 거죠? 그 뭔가 너무 밋밋하고 너무
 칙칙하거든요. 좀 빨간색이나 하얀색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 뭐 그것도 그렇지만 좌대의 형태를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저거 무슨
 트로피도 아니고.

○○○ 저 좌대가 통석인가요?

○○○ 스테인리스, 밑에 바닥만 스테인리스.

○○○ 아, 네. 원기둥은 스테인리스군요.

○○○ 네, 네.

○○○ 네. 방금 전 거가... 밑에가 지금 동그란데요, 좌대가. 밑에 네모 저기
 초록색 이하 부분은 땅에 묻히는 거죠?

○○○ 근데 보통 위애가 저렇게 브론즈로 덩어리 볼륨이 저렇게 크면 밑에는
 그냥 석재로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스테인리스로 저렇게 했
 다는 게 이 하중에 대한 것도 좀 그렇고, 일반적으로 굳이 왜 이거를
 스테인리스를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그 이 형태 자체가 너무 장식적이어서 사실 남대문이나 이런 데 지하상가 가면 많이 보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예술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 네, 트로피 같아요, 진짜.
- 근데 가격 금액이 2억 9,000인가요?
- 2억 입니다.
- 어, 2억.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너무 좀 과다 산정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작가 프로필을 좀 봤어요. 봤는데 개인전도 지금 4번 정도 한 작가이고. 물론 이제 개인전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작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 산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 차라리 하단에 저 물결 같은 거를 아예 브론... 그 저, 기둥을 없애고 그 옆에 형태를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브론즈로 하든지. 하단 부분에 대한 디자인 고치고 좀 이어져서 연결성 있게끔 조형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 구성 작업도 사실 그 좋은 작업이 많은데 그런 걸 너무 형태적으로.
- 오래 이제, 옛날에 많이 했던.
- 네, 보통 이제 그 형상이 많이 익숙해 있고 옛날 전통적인 느낌을 보통 진부하다고 그러죠, 보통은. 진부한 형상과 형태, 구조. 좌대에서 올라가 있는 거 하며 돌고래와 아이들 형태,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새로운 형상이나 모양은 아니죠.
- 근데 어차피 뭐 소재가 아이들은 항상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천이 뭐 바다니까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 밑에 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거를 더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단에 그걸 좀 더 조형성

있게 해서 좀 다른 느낌을 줬으면 나름 괜찮았을 텐데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신 것 같고.

○○○ 오히려 좌대에 위에 있어가지고 더 진부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예, 그런 것도 좀 있어요.

○○○ 저 좌대만 없었어도.

○○○ 예, 좌대 없고 저 형상이 커지면서 땅바닥에 그냥 있어도 더 나올 뻔
했죠.

○○○ 그러니까 이 똑같은 형태 가지고도 요즘 현대 작가들이 이렇게 줄을
넣는다는가 아니면 큐브로 만든다는가 방법을 되게 달리하는데 너무
진짜 말씀대로 진부한

○○○ 예, 너무 평이하죠.

○○○ 너무 이견... 그렇습니다.

○○○ 쉽게 가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 이미지 보면 저기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작품 우측에 길 건너서
바로 앞에서 보았던 작품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이 동시에 보였을 때 워낙 스타일이 다르고 그래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저 과연...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히려 앞에서 아이라는 공통 개념에 붓으로 해서 어떤 그런 걸 뒀다
고 하면 여기도 아이라는 공통되면 밑에를 조금 더 그런 유기적인 형
태로 좀 끌어내면 두 개가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 근데 작가들끼리 소통을 안 했겠죠.

○○○ 아, 아쉽네요.

○○○ 저도 좌대 부분 하고, 작품하고 좀 만나는 게 좀 어색한 것 같고요. 그
것만 좀 개선한다면 또 동심어린 느낌의 조형물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좀 이렇게 우리들이 그런 걸 조건부로 해서, 좌대이다 보니까.

○○○ 좌대를 조금 더

○○○ 밑에 파도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좀 약간 더 확장시켜야 좀 안전성이 있을...

○○○ 금액이 2억이면요. 사실상 구상도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저 사이즈가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작가가 작가 피 빼고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형태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 워낙 또 작가들이 저 수수할 때 변수가 많은 걸 뭐 다양하게 고려해서 그래서 그런 건데 작가 입장을 배려하면 조건 같은 걸 걸어야 된다. 부결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위원장 예,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5. 연수구 송도동 30-6

13) <비상 I / Soar>

위원장 예, 다음 작품. 지금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평면입니다. 참고해서 채점해 주시고요. <비상 I / Soar>라는 작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3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프린팅 회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 저게 1억 4,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작품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사이즈는 흔히 이제 500호, M사이즈입니다, M.

○○○ 근데 지금 그 73페이지 보면 지금 이거는 그 틀이 따로 없고 그냥 기본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걸어놓으신 걸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네, 네.

○○○ 요즘은...

○○○ 회화는 보통 그렇게 겁니다.

○○○ 그렇게 하기도 하기는 하지만

○○○ 아크릴 박스나 이런 것도 좀...

○○○ 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맨 노출로 간다는 거를 조금 불안해서.

○○○ 아크릴 박스는 500호 커버하는 게 일단 없을 거고요.

○○○ 아

○○○ 예, 없을 거고. 이게 한 피스로 된 큰 거라서. 그리고 또 물감 재료가 유화이기 때문에 누가 아마 일부러 칼이나 이런 걸 긁지 않는 이상은 튼튼할 겁니다.

○○○ 실내니까 일단 빛이나 뭐 먼지 이런 거는 좀 덜하다 하더라도 이게 높이가 이제 크다 보면 아래까지 해서 보통 애들이... 여기가 아파트잖아요,

○○○ 오피스텔.

○○○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 이것도 뭐 작품 자체는 역작인 것 같습니다, 예. 작품 자체는 잘 그렸습니다.

○○○ 네, 저는 그 설치되는 위치가 오른쪽에 창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햇살에 좀 비치기도 하는데 그 평면도에 보니까 거기에 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이렇게 소통이 돼서 되게 적절한 위치에 좋은 그림이 잘 설치돼 있다,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네.

○○○ 네, 그림 뭐, 그림 자체, 작품성 자체는 뭐.

○○○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혹시라도 이 300호가 넘는 작품, 이게 3m가 넘는 작품이긴 한데 그 위에 어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나요? 그런 어떤 재료들이 있나요? 뭐 아크릴박스 말고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액자를 따로 해서, 유리를 이렇게 얹는다고 이런 어떤 다른 방법들이 혹시 있나요? 변경할 수는

○○○ 만약에 있더라도요. 만약에 액자 같은 거 해서 유리나 아크릴 같은 걸 덮더라도 아마 그것이 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 너무 이렇게 크니까 3m고, 이게 더 커지니까 음

○○○ 나중에 에어브러시 같은 거로 이제 수시로 이렇게 청소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걸려 있으면 먼지 많이 안 탑니다. 그 위에 천장 그런 부분만 먼지가 타지.

○○○ 또 약간 먼지 타도 또 자연이기 때문에

○○○ 잘 모를 거예요, 먼지 타도 저런 거는.

○○○ 네, 저게 느낌이 더 변화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네,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5. 연수구 송도동 30-6

14) <도시산책자-별(월미도)>

위원장 자, 다음 14번 <도시산책자-별(월미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4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작품은 그 세로로, 그러니까 가로로, 좌우로 연결돼서 된 작품입니다.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하나가 된. 150호 M을 세로로 세워서 그 두 개를 좌우로 연결해서 붙인 크기입니다. 전체 크기는 아까 500호보다 약간 작고요.

○○○ 근데 이거야말로 스와로브스키가 재료면 이거 진짜 손을 더 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보호막이 필요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 스와로브스키의 그 어떤 유닛이 얼마한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크기도 나왔나요?

○○○ 사람들의 어떤 그 호기심 상, 붙어 있는 거 꼭 떼고 싶어 하거든요.

○○○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그걸 꺾어가지고 가고 그러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네, 네.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통과되면 그거는 이제 네.

○○○ 그리고 그 재료에 어쨌든 스와로브스키가 들어가서 그 접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이 없는 것 같고, 크기나 이런 것도 이게 상당히 큰 작품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 그리고 작품 설명과 계획에 보시면 여기에도 그냥 오일, 캔버스라고 나와 있어서 어떤 혼합 재료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네. 흔히 인조 보석으로 말해지는 그 스와로브스키 같은 것들을 만약에 부착하고자 한다면 아마 아니, 견고하게 부착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붙임 자체가.
- 일단 스와로브스키... 이 정도면 한 2링이나 3링 정도짜리를 이렇게 거꾸로 붙였을 건데, 그 아크릴로 했을 때 그 약간 물감으로 묻히는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냥 한 번 이렇게 해도 딱 떨어지면 되는 사이즈라 떨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가운데만 맞춰놓으면.
- 네, 안 떨어질 겁니다.
- 그렇게 아마추어는 아니겠죠.
- 이게 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박으실 거예요, 보석을.
- 미관상으로 봤을 때 그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작품성 좋으니까 그런 것만 좀 안전하게만 하면
- 맞습니다.
-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 네, 저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5. 연수구 송도동 30-6

15) <섬 길>

17) <뒤통산>

- 위원장 어, 위원님들. 이번에 15번부터 22번까지는 여덟 작품인데요. 쌍으로 되어 있어서 네 작가, 한 작가 당 두 작품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

걸러, 하나 건너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작가랑 두 작품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넘버만 사회자에게선, 넘버만 알려주시고 15, 17 이런 식으로 알려주셔서 이미지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예. 그러시면 15번과 17번 작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두 작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은 <섬 길> 같은 경우는 제목이 그냥 <섬 길>이라고 돼 있는데 무의도 뭐 이런 식 이름을 달았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제가 무의도나 장봉도도 뭐, 신도리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선이 딱 생각나서 나름 인천하고 연관이 있지 않은가, <섬 길>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 참고로 <섬 길>은 100호고요. 두 번째 <뒷동산>이라는 작품은 80호 정도 됩니다. 조금 작습니다.

○○○ 이런 구상 작업이 그런 데 잘 어울릴지도 있다는 의문이 들거니와 저 구상 작업 자체에는 기술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좀 글썽,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까지 한번 이렇게 보고선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 네, 뭐 많은 의견은 아니더라도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유화 작품입니다. 풍경도 굉장히 전형적이고요.

○○○ <뒷동산>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걸 시끄럽게 보라도 작품의 완숙미가 느껴지는 그런 좋은 작품이고요. <섬 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단순한 느낌이 좀 들고. 전체적으로 좀 엄청 완숙미가 느껴지는 그런 작가의 작품인 것 같은데 건물에 어울리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성으로 보면 완숙미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요. 15번, 17번 같이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5. 연수구 송도동 30-6

16) <희념-나래를 펴다>

18) <희념-여행을 가다>

위원장 다음 작품은 16번과 1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6번, 18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동양화잖아요?

○○○ 그렇죠, 예.

○○○ 좀 너무 뭐라고 그럴까, 좀 아닌 것 같아요. (

○○○ 원작을 찍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래픽으로만 만든 건가요?

○○○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픽을 이제 디자인에서도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이거를 1억... 얼마?

○○○ 물질감이 안 느껴지는 거 보니까 그냥, 그냥 그래픽인 것 같아요.

○○○ 예, 그리고 완성도 면에서도 사실 조금 더 좀 디테일한 그런 게, 차별화가 되는 요건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000만 원짜리인지, 1억짜리인지를 구분을 할 때 물론 작가적인 역량도 좋고, 어떤 스토리텔링도 있어야 되지만 완성도 면에서 약간 그 차이가.

위원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력을 쭉 보니까 인천 지역 작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인천이니까 당연히 인천지역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 작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천 지역에서도. 어... 근데 이게 회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또 입체 작업하고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또 없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료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설치방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근데 어,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 같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신 걸 제가 뭐라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공공미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작품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회화 작품에. 근데 그런 작품이 너무 없어서. 지금 사실 뭐 코엑스만 가봐도 아트페어 같은 것만 해봐도 좋은 작품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왜 그런 작품들은 하나도 없는가. 이걸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작품을 떠나서 지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인천 지역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폐쇄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알고 있는 인천 작가들 중에서도 회화 작품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분들도 또 되게 좋은 작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심의만 들어오면 좀 제 성향하고도 좀 안 맞는 작품들이 있는지, 현대 미술하고 떨어진 작품들이 있는지, 조금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점수 매겨주시면 됩니다. 16번, 18번입니다.

(채점 중)

5. 연수구 송도동 30-6

19) <공간 율-1>

21) <공간 율-2>

위원장 다음은 19번, 2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두 작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기 지금 사진 속에 보면 이렇게 약간 사진이 그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화면에. 저게 사진이 저런 겁니까? 작품이 저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 좀 확대해 주세요.

서 기 예.

○○○ 사진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아마 스캔 받을 때, 스캔 받을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작품 크기는 100호 같습니다.

○○○ 예, 100호.

○○○ 하나는 100호 F고, 하나는 두 번째 21번은, 100호 M형입니다. 약간 납작한 거고, 첫 번째 거는 F형이고. 재료는 유화로, 뭐 봐도 유화 같죠. 아까 거, 아까 거하고 그래픽하고는 다르게.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채점하실까요?

○○○ 네,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위원장 네.

(채 점 중)

5. 연수구 송도동 30-6

20) <Healing Landscape-愛-1>

22) <Healing Landscape-愛-2>

- 위원장 자, 다음 마지막 두 작품. <Healing Landscape-愛-1>, <Healing Landscape-愛-2> 20번, 2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예, 20번과 22번 작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통은 이렇게 그래픽화 같은 느낌은, 작품은 이제 나란히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같이 노는 게 좀 보기는 좋은데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프레임을 저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어두운 걸로 프레임을 갖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같은 라이트 계열로 해서 좀 확장성을 넓게 그림이 좀 그렇게 보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정도만 조금. 이게 딱 간혀 있으면 오히려 그림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그림 자체가 약간 좀 확장성이 있는 거라 프레임 부분을 조금 아예 같은 흰색 톤으로 해서 넓게 보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근데 작품이 수묵화도 아닌데 왜 먹은 강조하고 다른 재료를, 혼합 재료로 이렇게 뭉뚱그려놨는지 약간 궁금하네요. 먹이 강조된 것처럼, 먹이라고 하는 재료는 걸로 드러냈는데 나머지를 혼합 재료라고 해놓으니까 바탕은 캔버스인데. 그림 자체는 컬러가 들어갔는데 저건 분명히 먹이 아닌데, 색깔이. 제일 크게 나온 게 있나요? 이미지가. 다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 유채색 먹도 있습니까?
- 없죠.
- 먹이라는 그 자체...

○○○ 예, 까망이죠.

○○○ 아는데 지금 다른 재료로 지금...

○○○ 재료가 보통 5개나 10개 이상 들어갔을 때는 다 기술하기 어려우니까 혼합이라고 쓸 수 있는데 뭐 5개미만 또는 욕심 부려서 한 7~8개 되더라도 작가로서 좀 디테일하게 어떤 재료가 들어갔다고 딱박딱박 써주면 참 좋은데. 캡션 자체가 뭔가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기에 좀 참고가 되려고 쓰는 건데 그게 좀 어떻게 아쉽네요.

○○○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게 무반사 아크릴이...

○○○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나오나요?

○○○ 예,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 예, 이거, 이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화이트이기 때문에 배경이. 그래서 오히려 무반사 아크릴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 근데 무반사 아크릴이 저는 작은 작품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렇게 큰 작품들은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 그게 진짜 작품가를 넘을 거예요.

○○○ 예, 엄청 비싸다고 그랬어요.

○○○ 아, 예.

○○○ 3,500밖에 안 되는데 안 되죠.

○○○ 그렇죠.

○○○ 근데 새가 이렇게 유리 부딪혀서 죽듯이 너무 무반사로 해놓으면 진짜 없는지 알고 부딪힐 수 있어요.

위원장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 위원장 네, 저 채점 결과 한번 보시죠, 회화가 다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가결
중에서요. 4번, 6번, 9번이 조건부를, 조건부 의견을 달 것인가, 안 달
것인가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4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 서 기 4번이요?
- 위원장 네. 권고나 조건부 중에 하나.
- 조명.
- 조명은 조건부여야죠. 저것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떠나서
- 위원장 네, 수중등이 좀 불완전하다.
- 조명이 이제 지금 보니까 3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구
정도만 더 넣어도
- 이제 물속에 넣는 거는 그냥 유지하고요?
- 예. 근데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면 조형에는 방해가 되거든요.
- 그렇죠, 예.
- 그리고 이제...
- 근데 아까 추가해서 빛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 예, 뭐 그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래픽하고 실제로 세워지는 작품이
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 네, 그러면 그 합선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 예? 아니, 그거는 수중등이 다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그
런 방수가 완전히 되는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문제

가 될 게 없고요. 만약에 이제 조명에 빛이 저기 한다고 그러면 한 2개 정도 더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아, 조명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예.

서 기 조명 추가, 팔호 열고 2개정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하는 위원들 있음)

○○○ 저것도 아파트 처음 지었을 때는 물 있다가 또 한 1년 지나면 물 다 빼는 거 아니에요? 냄새 난다고.

○○○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겨울에는 물을 뺍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명 추가로 하죠. 저건 권고가 아니라 조건부죠? 꼭 해야 되는 거죠? 조명은?

사회자 예, 조건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심의 끝나고 심의도서를 별도로 이제 보완해서 다시 오면 서면심의 다시 위원님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아까 조건부 내용에서 저 상단에 연결 부위에 용접 부분이나 그런

○○○ 아, 구조도. 구조도.

○○○ 예. 그것도 조건부로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단 부위 연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상단 부위...

○○○ 예, 상세도면 추가.

서 기 상세도면 추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예, 도면 추가라는 얘기는 도면도 만들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설치도.

○○○ 상세도 도면 추가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또 이제 제작을 해야 되죠.
예, 예.

서 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추가 및 제작, 네.

위원장 네. 지금 이 두 가지 조건부 의견 동의하시나요,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위원장 네, 다음은 6번… 6번이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상세도면 구조
에 대한 상세 도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아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6
번.

서 기 이것도 조건부로 들어가나요?

○○○ 그래야겠죠. 예. 아까 그 벤치 같은 거, 뒤에 있는 벤치 같은 거는 그
거는 권고로 해도 되고, 조건부로 해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해줘
도 되고요. 또 다른 뭐 없죠, 조건이요?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위원장 네, 네, 다 의견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위원장 네. 다음 9번.

서 기 9번이요?

위원장 네, 9번이요. <홀로서기 stand alone 202311>. 그 아까 그 벤치 역할 하

는 저거를 권고로 해요? 조건으로 해요?

(“권고.”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 네. 나는 이거 작품으로 꼭 하고 싶다고 그러면 놔두고, 치위도 된다, 권고로.

서 기 그러면 주변 벤치 제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위원장 벤치 제거... 권고사항이니깐요. 예.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서 기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위원장 네, 됐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이게 이제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중에 가결이 16건이고요. 가결 16건 중에 13건이 원안 가결이고, 2건이 조건부 가결입니다. 그리고 1건이 권고고요. 그리고 22개 중에 6개가 부결이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대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16건 가결, 조건부 2건, 권고 1건 그리고 부결 6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 사 봉 3 타)

위원장 자, 이것으로써 2023년 제1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녹 취 종 료 -